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여성 복지 지원 전략에 관한 연구¹⁾

- 진주시를 중심으로 -

김경미·박경철*

농촌진흥청·*서울대학교

A Study on Social Welfare Supporting Strategies for Rural Women

- A Case of Jinju City -

Gyung Mee Gim · Kyong Cheol Park*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scribe the problems of rural women in changing rural society and environment in Korea, to search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s, and propose strategies for improving rural women's welfare. Related literatures and existing data were reviewe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social-economic status, and economic activities of rural women in Jinju city, Gyeongsangnam-Do province.

Jinju city had relatively higher percentage of farming people and rural women than other cities of Gyeongsangnam-Do, and agriculture occupied important portion in industrial sector in the area. According to the Jinju 21C Vision Project, the city was planning to build eco-friendly environment and welfare rural society. To achieve the goals and objectives of the project,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 1) Success of the project may depend on how to motivate and support rural women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oject.
- 2) Jinju city should set up some practical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status of rural women who take key roles in environment and agriculture.
- 3) The city should establish strong support system and practical programs for rural women in building eco-friendly Jinju city.

Key Words : Social welfare, Rural wome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개막 이후 농촌

여성단체를 비롯한 지역기관의 활동도 기존의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사업에서 지역적·사회적 조건에 따른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여성문제나 지역사회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농

1) 이 연구는 2001년도 진주시청의 지원금을 받아 '농촌여성 복지 및 생활개선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용역과제로 수행되었으며 2001년도 진주시청 주최 "21세기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촌여성들의 움직임은 단지 농촌여성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진주시에서 지역의 농촌여성 발전과 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개선사업의 발전 방안을 독자적으로 모색하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특히 그 동안 국가주도로 수행해왔던 농촌여성 지도와 생활개선사업이 1997년도부터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되도록 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역의 사회적·산업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러한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문제점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와 노동력 부족의 문제, 편부모 가정 등 결혼가정의 증가, 경제적 빈곤에 따른 저소득 계층의 열악한 생활상태, 문화적 결핍, 과도한 노동에 의한 노령장애인의 증가, 지역사회가 부양해야 할 대상자 수의 급증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경북 여성정책개발원, 2001). 지리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농촌의 공간적 특성과 함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인프라 구축이 열악한 농촌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이 어느 분야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농촌여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진주시에서 관할 지역내 농촌여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의의있는 일이며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주체로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생활개선사업과 앞으로 진주시에서 목표로 하는 발전

방향과 농촌여성의 역할,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의 활동을 적절히 연결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지역별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진주시의 농업환경과 농촌사회의 구조에 따라 여성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경남에서 진주시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 진주시의 발전 방향과 비전 속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역할, 진주시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여성의 문제와 역할 등에 대한 연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진주시 농촌여성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진주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누가 수행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생활개선사업의 발전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바야흐로 세계화시대인 만큼 이러한 사업의 방향과 전략적 목표들이 국가정책 또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맥락에서 농촌여성을 위한 사업과 전략적 목표들을 설정하는 데 관심을 두었으며 가급적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다.

II. 연구의 방법과 절차

1.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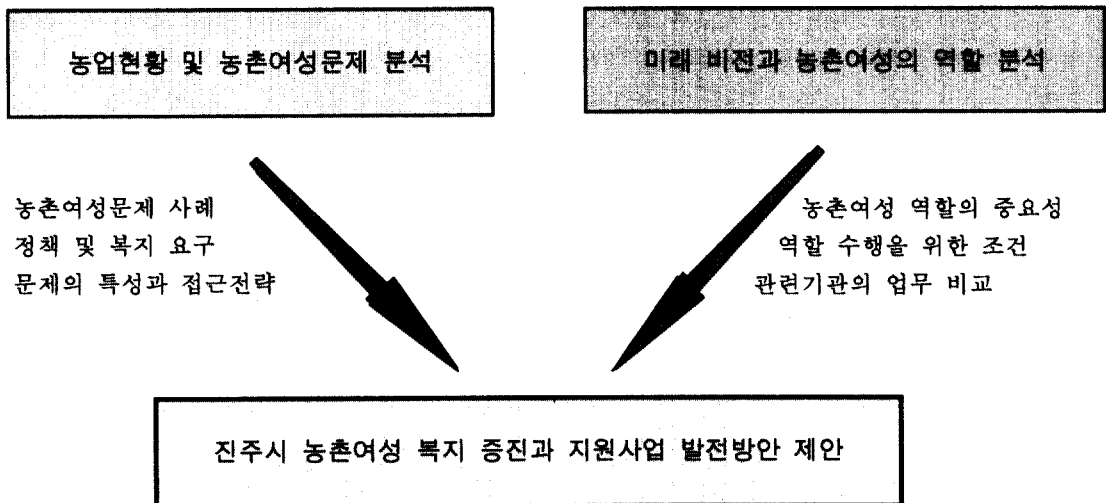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진주시 농촌여성의 현황과 실

태를 파악하고 진주시 발전 계획 속에서 농촌 여성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관련 문헌들을 토대로 농업구조의 변화, 농가인구 및 농촌여성인구 추이,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과 농업참여도, 농촌여성 문제와 요구의 특성,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 농촌여성과 관련된 복지제도의 현황과 전망, 진주시 경제와 인구 중에서 농촌여성의 역할과 기여 분야 등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농촌여성에 관련된 각종 조사보고서와 전문서적, 농업정책과 여성정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비교 고찰하여 내용분석을 시도하였고, 지역별 조사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례로 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진주시청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 제언 부분에 첨가하였다.

2. 연구의 절차

이 연구의 절차와 개념적 순서는 다음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절차와 순서

Ⅲ. 진주시의 농업현황 및 농촌여성의 문제

1. 진주시 농업의 일반현황

가. 농가인구 및 농촌여성인구

2000년 농업총조사결과에 따른 농가인구 분포를 보면 <표 1> 과 같이 전국적으로 농가수와 농가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995년에 비하여 2000년에는 농가 7.8%, 농가인구 16.9%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경남은 전국평균보다 감소율이 훨씬 높은 반면 진주는 전국평균보다 감소율이 낮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기반이 되는 가구와 인구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농가의 여성인구로서 전국적으로도 1995년에 비하여 5년 동안 19.1%가 감소하였고 경남은 22.9%가 감소하였다. 진주의 경우는 경남도내 시군별 농가수를 비교할 때에도 2000년 15.2천 가구(경남의 8.9%)로 가장 많고, 농가인구의 증감율이 비교적 낮아서 상대적으로 농가 인구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

<표 1> 농가인구 및 농가 여성인구

구 분	전 국			경 남			진 주		
	1995	2000	증감율	1995	2000	증감율	1995	2000	증감율
농가수(천호)	1501	1384	-7.8	198	170	-14.1	15	15	0.0
농가인구(천명)	4851	4032	-16.9	606	464	-23.4	50	46	-8.0
농가여성(천명)	2681	2170	-19.1	315	243	-22.9	26	24	-7.7
전체인구 중 여성(%)	49.8	49.6	-0.2	49.7	50.0	0.3	50.6	50.4	0.2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	10.8	8.7	-2.1	15.8	15.6	-0.2	14.9	13.5	1.4
농가인구 중 여성(%)	51.1	51.1	0.0	52.1	52.3	0.2	51.7	52.1	0.4

* 자료 : 농림부, 2000년 농업총조사 잠정결과.

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도 농가인구 중 여성은 전국 평균이 51.1%인데 반해 경남은 52.3%, 진주는 52.1%로 다소 높다. 전체 인구 중 여성의 비율도 경남과 진주가 약간 높은 편이다.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의 비중은 전국이 8.7%인데 반해 경남은 15.6%, 진주는 13.5%로 상대적으로 높아 경남과 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주시는 농가인구의 비중과 농가의 여성인구 비중을 전국, 경남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비교적 농가인구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령계층별 성비를 살펴보면 <표 3> 과 같이 전체인구의 구성비는 전국 평균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경남과 진주의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많다. 반면에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비를 보면 25~34세 연령층은 경남과 진주의 경우 여성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업분야의 인력부족이라는 일반적인 현상이 진주시의 경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농가인구의 노령화와 여성화가 다른 지역보다 뚜렷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표 2> 전국 및 경남지역 농가인구 중 진주시 농가인구 비중

구 분	1990	1995	2000
전국농가인구 중 경남 농가인구	12.6	12.5	15.0
경남농가인구 중 진주시 농가인구	7.9	8.2	9.9
전국농가여성 중 경남 농가여성인구	12.8	12.7	15.5
경남농가여성 중 진주시 농가여성인구	7.8	8.2	9.8

* 자료 : 농림부, 2000년 농업총조사 잠정결과.

〈표 3〉 연 령 계 층 별 인 구 의 성 비

(단위 : %)

구	분	0~14	15~24	25~34	35~44	45~54	55~64	65+
전체(2000)	전국	88.9	91.3	98.5	97.3	97.7	109.2	161.9
	경남	86.8	87.0	100.2	94.9	95.7	121.6	176.5
	진주	85.3	92.2	88.1	102.4	103.0	117.3	193.0
농가(1995)	전국	93.0	93.8	71.9	107.0	116.7	116.3	123.9
	경남	91.0	95.7	68.6	114.4	125.6	125.0	127.1
	진주	89.3	94.6	67.5	110.4	122.8	125.0	127.1

* 표안의 숫자는 각 지역별·연령층의 남성인구 대비 여성인구 비율임.

** 자료 1) 통계청, 2000년 인구가동통계연보.

2) 농림부, 1995년 농업총조사, 제1권 전국편.

나. 영농유형 및 경지규모

영농형태별 농가의 구성비율을 보면(농림부, 2000) 논벼는 점차 감소하고, 채소나 과수 등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4〉를 보면 1995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논벼의 비율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1990년의 69.7%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남의 경우

에도 비슷하지만, 경남의 경우는 채소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는 채소 농가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반면 논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즉 진주시 영농구조는 논벼보다는 채소, 과수 등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발작목 위주의 영농구조는 여성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말한다.

〈표 4〉 영농형태별 농가 및 경지규모

(단위 : %)

구	분	전 국		경 남		진 주	
		1995	2000	1995	2000	1995	2000
영농형태별 농가비율 (%)	논 벼	54.9	57.3	52.0	57.0	48.5	48.1
	과 수	9.6	10.4	9.0	9.7	12.1	14.3
	채 소	16.4	16.2	19.0	20.7	29.9	28.2
	축 산	10.4	5.1	14.7	5.5	5.1	3.3
경지규모	1ha미만 농가비율(%)	57.6	58.1	70.6	70.2	70.8	70.6
	가구당평균(ha)	1.12	1.36	0.84	1.06	0.85	1.04 ¹⁾

* 1) 1999년도 자료(2000 주요 통계자료).

** 자료 : 농림부, 1995년 농업총조사(제1권 전국편) 및 2000년 농업총조사 잠정결과.

다. 진주시 산업과 농업

경남도는 다른 지역보다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주시는 그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를 채소의 종류별로 재배면적을 구분하여 비교해본 결과 경남지역 내에서 과채류와 조미채소 비중이 높았는데 진주시의 경우는 과채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5>을 보면 진주지역은 과채류 생산이 80%를 상회하고 있었으며 1995년에 비해 2000년에는 엽채류쪽으로 조금씩 작목을 전환하는 추세를 볼 수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채소를 재배하는 거의 모든 농가에서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채소 재배면적의 종류별 구성비 (단위 : %)

구 분	경 남		진 주	
	1995	1999	1995	1999
근 채 류	7.9	6.4	5.9	5.7
엽 채 류	12.7	9.0	10.3	14.8
과 채 류	39.2	35.7	88.3	83.8
조미채소	40.2	39.7	1.4	1.4

* 자료: 농림부, 농림업통계연보 및 진주시청, 2000주요통계.

세부적인 자료는 살필 수 없었으나, 이들 과채류 작목들은 거의 대부분 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작목이라는 점에서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목이다. 즉 시설채소의 재배는 물론 수확, 선별,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손길이 더 많이 요구하는 작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주시의 2000년 농산물 수출실적은 7,115천\$로 전국의 0.6%에 해당한다. 이를 농가인구 비중과 비교하여 단순 수출생산력으로 환

산해보면 2000년 진주시 농가인구 비중이 전국의 9.9%이므로 진주시 농가인구의 1인당 수출생산력은 0.06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주시는 수출지향적인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남지역의 농정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진주는 우리 국토 중 서울, 대전, 통영, 제주의 남북축과 부산, 마산, 진주, 광주, 목포의 동서축이 교차하는 남부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주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국도, 철도, 항공 등 지역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물리적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21비전'의 과제 8에서도 전국 제일의 농산물 수출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수출경쟁력을 높일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2. 진주시 농촌여성의 실태와 문제

가.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수준

농촌여성의 경제활동을 전체 산업구조 속에서 여성의 농업부분 참여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분석해본 결과, 2000년 우리나라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은 <표 6>과 같이 60.7%이며 경남은 60.2%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41% 수준이다. 농가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11.4%에 불과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13.2%로 약간 높다. 이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해보면 전체 여성의 경우는 69.5%인데 반해 농가여성의 경우는 90.6%에 이르고 있어 농업부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높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유형을 산업별로 비교(통계청, 2000)해 보면 전 산업 중 농림업 취업자는 2000년도에 전국 평균 10.5%에 불과하며 경남의 경우는 14.5%로 다소 높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전 산업부문의 남성취업자 대비

<표 6> 여성 및 농가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구	분	전 국		경 남	
		1997	2000	1997	2000
경제활동참가율		62.2	60.7	60.9	60.2
여성/경제활동인구		41.0	41.0	40.0	41.5
농가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12.2	11.4		
농가경제활동인구/여성경제활동인구		14.1	13.2		
여성/남성경제활동인구		69.6	69.5	40.1	71.0
여성농가경제활동인구/남성농가경제활동인구		89.9	90.6		
농가경제활동참가율		73.1	74.5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5	48.3	47.3	48.0

* 자료 : 통계청, 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취업자 비율은 경남이 72.2%(전국 70.5%)인데 반해 농림부문 남성취업자 대비 여성취업자 비율은 경남 106.%(전국 93.4%)로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농림부문의 여성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지역 농업은 절반 이상이 여성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을 연령계층별로 남성의 참여수준과 비교해(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남성×100%)보면 <표 7>과 같이 24세 이하에서 높다가 25~44세에 가장 낮고 점차 다시 높아지지만 남성과 비슷한 수준(100%)에 근접하지 못하는데 농림업은 35세 이후에 거의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45세 이상에서부터는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서 왜 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나. 농촌여성의 농업참여도

농촌여성의 농업참여정도를 15세 이상 농가 인구의 농업종사유형을 통해 보면(농림부, 2001), 농업주종사율이 1999년도에 남성이 75.0%인데 반해 여성은 80.7%이며, 겸업종사유형별로 보아도 농업소득이 위주가 되는 1종 겸업에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미혼 남성의 농업

<표 7> 연령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수준

(단위 : %)

구	분	연 령 계 층 별					
		15~24	25~34	35~44	45~54	55~64	65+
전 산업	전 국	158.6	56.4	62.6	64.1	71.8	90.3
	경 남	144.2	54.2	60.8	72.6	95.6	102.3
농 립 업	전 국	121.6	46.0	90.1	102.1	103.0	87.4

* 자료 : 통계청, 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8〉 경남지역 여성의 연령별 농업주종사율(1995)

(단위 : %)

구 분	15~24	25~34	35~44	45~54	55~64	65+
전 국	41.6	113.2	120.7	124.9	116.2	89.6
경 남	40.6	114.3	134.3	137.1	124.4	89.5

* 자료 : 농림부, 1995 농업총조사.

주종사율이 32.0%인데 반해 미혼여성의 농업주종사율은 11.5%로 약 1/3 수준이라는 점은 농촌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농업에 정착하기 어려운 여건, 즉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남지역 여성의 연령별 농업주종사율을 남성의 농업주종사율과 비교하여(농업주종사여성 ÷ 농업주종사남성 × 100%) 보면 〈표 8〉과 같이 35세 이상에서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경남지역은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말해주며, 이는 진주시의 경우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 농촌여성의 생활실태와 일반적인 문제

농촌여성의 일반적인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나누어보려면 여러 주거환경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을 살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종합적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생활여건의 수준에 대한 비교는 도시와 농촌간의 부분지표(농림부 a, 1999)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노령화지수는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무려 3.2배 수준에 이르고 있고 여성가구주 비율도 높다. 즉 혼자 있는 여성노인가구가 많다는 일반적인 지적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사는가를 판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활만족도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농촌에 사는 여성들의 생활만족도는 〈표 9〉와 같이 그 수준이 일반적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9〉 농촌 생활만족도 및 계속거주 의사

(단위 : %)

구 분	1997 (농생연a)	1999 (강원)	1999 (충북)	1999 (농림부)
농 촌 계속거주		86.2		11.8
농사/농촌 생활만족도	68.5	42.3	38.9	31.2

이와 같이 여성이 농촌에 계속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응답자나 조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힘든 농사일, 낮은 소득, 교육환경의 취약, 문화적 환경의 취약, 발전 가능성의 부재 등이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요인은 낮은 소득과 힘든 농사일이다. 이와 같이 농사일을 하는데 힘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파악해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힘든 노동과 낮은 소득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그밖에 농업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부족, 농산물의 판로 확보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 역시 간접적으로는 농업생산과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에 비추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농어업에 종사하는 숙련자들은 〈표 10〉과 같이 작업환경, 상하관계, 동료관계, 남녀관계 등의 면에서 전문기술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그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표 10>

근로여건에 대한 직업별 만족도

(단위 : %)

구 분	작업환경	근로시간	상하관계	동료관계	남녀관계
전문기술관리직	36.5	34.9	43.9	55.2	37.6
사무직	35.0	36.7	39.9	52.8	33.9
서비스판매직	17.7	55.3	28.8	9.5	24.4
농어업숙련자	11.6	46.6	21.9	33.2	12.9

* 자료 : 통계청, 1999 한국의 사회지표.

이러한 작업환경과 관련해서 농업인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직업병적 증후군을 ‘농부증’이라 하는데 농부증 발현율(농생연 d, 1999)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부증 발현율이 1994년 19.8%에서 1999년 28.5%로 5년 동안 8.7%가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7.6%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은 10.1% 증가하였다. 즉, 여성은 같은 시간 농작업을 하더라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농부증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1995년 농촌여성의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62.9%로 농촌남성 39.6%의 1.6배이며, 도시 여성의 18.4%에 비하면 3.4배에 이른다. 또한 농가인구의 노령화, 과중한 노동부담 등으로 꾸준한 참석과 활용연습이 필요한 컴퓨터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1998년도 안성의 사례조사 결과에서는 30~40대 주부가 있는 농가의 컴퓨터 보유율은 29.4%이지만, 주로 자녀 교육 등에 쓰이고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는 농가는 10.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성별 컴퓨터 사용능력 및 통신·이동수단 보유수준(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보면 비록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율은 절반수준으로 낮지만 지역별 남성의 활용수준에 비교해볼 때는 오히려 농가의 여성이 비농가 여성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농가는 컴퓨터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오히려 도시

보다 다소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주 사용 비율을 보아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라. 농촌여성의 문제와 요구의 특성

1) 농촌여성의 의식과 지위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역할과 의사결정 참여도가 사용되며, 이와 더불어 의식에 대한 지표가 사용되기도 한다. <표 11>을 보면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남성과 동등한 취업자로 인식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대개는 남편을 돕는 농업보조자 내지는 가사를 담당하는 주부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전문경영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비율 역시 5% 내외에 불과하다. 충북의 경우는 후계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므로 전문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로 간주하기는 하였으나 본래 의미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

<표 11> 여성농업인의 자기 인식

(단위 : %)

구 분	1999 (충북)	2000 (경북)	1999 (농림부)
남성과 동등한 취업 여성	16.6	6.0	56.5
전문경영인(충북 은 후계농업인)	20.8	5.5	5.5

여성의 역할은 가사일과 농사일 외에도 최근에는 지역사회 참여나 단체활동까지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로는 기본적으로 농사일과 가사일을 병행하고 있다. <표 12>를 보면 여성의 역할은 남성과 비교할 때 가사에는 97.5%, 농사에는 68.6%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각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수준은 상당히 낮다.

<표 12> 농촌여성의 역할과 의사결정 참여수준 (단위 : %)

구 분	가사일	농사일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
역 할	97.5	68.6	43.2	40.9
의사결정 참여	69.8	28.8	-	-

* 자료 : 농촌진흥청, 1997, 농촌여성의 역할수행 및 지위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로 또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농가의 소유권이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부간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여성의

권한을 인정하는 여성계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성이 농업과 관련된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1997)과 농촌생활연구소(1998)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 명의로 된 토지나 주택은 2% 내외이며, 90% 이상이 남성의 명이다. 그러므로 농가 여성의 재산소유권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재산소유권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는 자신이 기여한 만큼에 대한 인정과 보람, 농업 참여에 대한 동등한 권리, 노후생활 보장 등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다.

2) 농촌여성의 지원요구와 정책과제

농가의 여성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살면서도 즐겁고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바라는 내용들을 알아보았다. 먼저 경북, 충북과 농림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표 13>과 같이 여성의 전문인력화 방안 마련과 교육 확대, 복지시설 확충, 소유권 인정 등 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활동 활성화 등을 중요한 정책적 요구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13> 농촌여성의 정책 요구도

(단위 : %)

구 분	2000 경북	1999 농림부	1999 충북
전문인력화, 교육 확대	20.0	26.9	41.0 ¹⁾
사회적지위 향상	12.1	16.2	(표 36)
복지시설 확충	19.0	33.6	
여성농민관련통계, 기초조사	7.5		
경제력 확보활동	22.4	19.4 ²⁾	14.1 ³⁾
노동력 경감방안 개발	14.4		8.5
출산보육 대책		3.1	23.7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12.6

¹⁾ 농업기술교육(6.4), 여성후계농업인 육성(5.4), 취미교양교육(15.2), 부업 및 직업교육(14.0).

²⁾ 소유권 인정.

³⁾ 농가여성 금융자금 지원(5.9), 영농자금 장기 저리 대출(8.2).

IV. 진주시 미래 비전과 농촌여성의 역할

1. 진주시의 미래 비전과 농촌여성의 중요성

가. 진주 21비전의 실현을 위한 터전을 유지하는 주체

진주시는 미래의 발전 목표와 개발 방향으로서 '진주 21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진주 21비전의 실천과제 중에서 농업·농촌에 관한 과제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농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한 삶의 터전은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류 최대의 쟁점이 될 환경보전의 문제는 심각한 국가간 협정의제가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촌은 21세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진주 21비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 터전으로 진주 21비전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식·문화·환경 중심의 푸른도시, 행복도시'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본요건이다. 또한 경남의 미래 지식산업으로 생물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에 부응하여 농업분야 생물소재산업 육성의 적지가 진주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안까지 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진주시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농촌여성의 역할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첫째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진주 21비전의 기본 발판으로서 농촌은 중요한 터전이며 이를 지키고 이끄는 핵심주체라는 것이며,

둘째로 농업분야 생물소재 산업 육성 적지로서 진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무한한 생물

소재를 보전하고 새롭게 창출해낼 주체가 필요하며 이 또한 농업·농촌사회 유지로 가능한데 농촌여성은 그 주체의 절반 이상으로서 이러한 생물산업 소재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는 3차 서비스산업 비중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논개'로 상징되어 지는 역사와 충절의 고장으로서 자연·문화자원을 관광자원과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가 따라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손은 절실하다. 농촌여성은 새로운 관광 문화의 선도자이자 제공자가 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나. 세계적인 흐름 및 국가 시책에 부응 한 효과적 투자의 대상

국제기구에서는 현재 농촌여성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각 국가에서 적극 추진하고 그 실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농촌여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1979)에서는 국가가 농촌여성의 보건 및 복지, 교육, 지역사회 활동 등 사회경제적 지위 증진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제 3차 세계여성대회(1995)에서는 농촌여성 정책이 소외계층의 복지문제 차원에서 벗어나 농업개발과 관련 정책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세계농업기구(FAO)의 '여성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1995)'은 농촌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남녀간 형평성 증진, 의사결정과 정책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향상, 농촌여성의 노동 부담 감소, 취업기회 확대 등과 같은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의제 21·32장에서는 농업을 세계

의 핵심 산업부문으로 간주하고 환경관리 및 개발에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여 여성의 토지, 신용, 기술, 훈련 등과 관련된 조치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따라서 농촌여성에 대한 농업 기술, 농업경영, 가계경영 능력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농촌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농업·농촌개발 사업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은 상당히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여성의 정책요구가 매우 다양하며, 복지시설이나 서비스 못지 않게 교육환경이나 생활여건의 개선과 같은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여성이 농촌에 살고 싶어하면 농가의 농촌 정착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일정규모의 농가인구가 유지될 것이고 이들을 통해 농업생산력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농촌환경의 보전과 농촌사회 유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은 '동반정책'의 효과까지 있다.

다. 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평등성 증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진주시에는 농가인구의 비중이 약간 높으며 농촌여성의 비중 또한 다소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진주시민의 균형적인 발전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농촌여성을 위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진주 21비전'의 실천과제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수혜자를 위한 생산적 복지 지향(과제 6), 희망과 긍지를 가진 양질의 농업인력 육성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복지구현과 문화생활 충족(과제 8)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

므로 농가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진주비전 21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이러한 역할은 주로 농업기술센터 혹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생활개선팀에서 주로 담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화 이후 지역에 따라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 추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들은 여러 부서에서 각기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또한 농촌여성의 문제는 여성으로서의 문제 외에도 농업인으로서의 문제, 시민으로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여러 부처에서 협동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2. 진주시 농촌여성 복지와 생활개선사업

가. 농촌사회 일반적인 복지문제 속에서 여성복지의 문제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복지수준에 관한 연구(조홍식, 2001)에 의하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농촌은 노령자가 많아 빈농인 노령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의 측면에서는 수급권자 선정에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대부분 타지에 살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등이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전체 농가의 약 14.9%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 노령농가 대부분이 여성노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진주시 지역에서만도 기초생활보장 대상 중 농가의 비중이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가 없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이다. 공공근로활동 알선사업의 경우 94.8%로 높은 편이지만 그밖에 자활공동체사업(38.2%), 농업노동재해보험(50.3%), 재가복지서비스(32.5%), 농가도우미제도(43.8%) 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 비율은 절반 이하였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돌보아야 할 가구원이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14.5% 수준이며 이들을 돌보는 주 책임은 주로 여성가구원에게 있거나(42.4%) 아예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53.4%)가 대부분이었다.

즉 여성은 가구 내에서 장애가 있거나 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그 주요 부양부담을 지게 되는 일반적인 경향의 반영이기도 하다.

농업·농촌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농촌사회 유지 측면에서 농가의 이농의사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었음에도 농촌에서 이농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52.0%) 있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농업인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는가에는 5.8%만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정보화교육도 농업인의 정보화에 기여한다는 비율은 5.3%에 불과하며 일부 젊은 영농인들에게는 기여하고 있으나 전체 농업인에게는 그다지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46.6%로 오히려 높았다.

또한 농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도 강원지역(1999)의 경우 10.1%, 경북지역(2000)의 경우 13.7%로 15%를 넘지 못하였고, 비교적 의식이 있다는 선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조사(농생연, 1999)에서도 33.3%로 절반을 넘지 못하였다. 진주시의 경우는 전체 영농생계자 중 여성의 비율이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전국 평균이나 경남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지역보다 여성농업후계인력 육성 등의 문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능으로 중요성

이 인정되는 환경보전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현재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조홍식 등의 연구(2001)에 의하면 농촌의 생활환경에 시급한 과제로 주택개량 지원사업의 확충(20.3%)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지만 폐비닐과 농약병 등 농축산 폐기물 처리 지원(27.8%)이나 정화조 및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19.9%) 등도 시급하다는 것이 사회복지담당자들의 의견이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앞으로 농촌여성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나. 진주시 농촌여성 복지사업 현황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은 크게 보아서 시청의 가정복지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팀에서 추진하는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표 14>와 같이 제시해 보았다.

<표 14>을 보면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노인복지 등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성복지의 경우도 여성정책이나 권익 보호와 같은 활동에 더 초점이 주어져 있는 반면 생활개선팀의 경우에는 농촌여성의 생활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의 내용이 관할 범위의 한계는 행정력과 담당인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재의 시스템을 벗어나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발전적인 사업 방향이 있더라도 그러한 방안들이 현재의 시스템을 조정할 만큼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현재의 그 시스템이 바람직한 틀 속에서 조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진주시에서 비교적 농촌여성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생활개선사업의 과제를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표 14> 진주시 농촌여성 복지 관련사업 현황

여성부·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등	농 립 부	농 촌 진 흥 청
남녀 평등의식 제고 및 성차별 시정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정보체계 구축 및 여성 정보교육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역단위 여성사회교육기관 증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요보호여성의 복지 증진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성화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및 지원 여성 모성 보호 및 보육시설 확충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시행 노인건강관리 및 생활보장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협동조합 참여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위촉 확대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농가도우미 정착 모자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산물 가공교육 농촌여성 일감 갖기 향토음식 맥 잇기 농촌주거환경 개선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농· 작업보조도구 보급 여성농업인 정보화 노인생활지도 생활기술과제 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교육
시 청(가정복지과)		농업기술센터(생활개선팀)
자원봉사자 소그룹 운영		생활개선회 육성
여성교양강좌, 여성사회교육, 여성정책위원회 및 토론회,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전통 장담그기 공개 강좌 및 생활기술 교육 여성농업인 농사교육/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운영, 결식학생 중식 지 원,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수련실 운영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 지원
노인복지: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 요양원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예절학습당, 노인 대학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합동결혼식, 모·부자가정 지원, 민간여성 상 담소 및 가출소녀 선도보호의 집		마을공동쉼터 조성, 농촌생활환경 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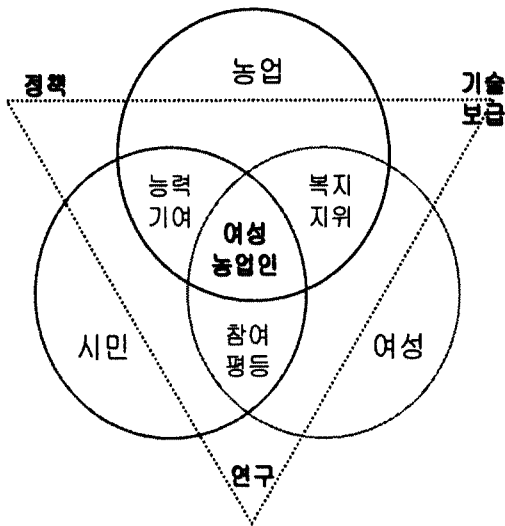
V. 진주시 농촌여성 발전과 복지 증진 방안

1. 농촌여성 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개념적 접근

진주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농촌여성의 문
제는 농업부문, 여성부문, 그리고 지역사회의
시민이라는 문제가 교차하는 접점에 있다고 보
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그림 3> 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농촌여성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연구와 개
발된 기술 및 정책의 시행과정이 있다고 한다
면 농업과 시민부문의 접점으로서 농촌여성
에게 필요한 것은 농업이라는 직업을 수행할 능
력과 지역사회 발전에 경제적으로나 다른 어떤
형태로의 기여일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과 여성
부문의 접점에서는 여성으로서의 보편적인 문
제인 지위 향상의 과제와 취약계층으로서의 복
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과 지

역사회 시민부문의 접점으로서의 남성과 평등한 참여와 사회적 조건과 기회의 평등일 것이다. 이러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때 이를 위하여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된 기술과 제도를 시행하는 삼각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농촌여성의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농촌여성의 문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개념도

물론 여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다. 농촌여성의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은 불과 5~6년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지난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농림부에 설치되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00년 말에 와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여성농업인 육성법안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속에서 농촌여성 문제 해결의 방안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던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농촌여성이라는 집단적인 대상을 입체적으로 보기보다는 평면적으로 전

체적인 틀로 보려고 했던 원인도 있다. 따라서 농촌여성의 문제는 크게 복지실태, 생활실태, 정책요구 등 광범위한 대상으로 접근해왔기 때문에 마치 다 다른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인 문제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제 역시 하나의 차원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노력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 농촌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영역별 접근 전략

진주시 농촌여성의 문제를 일반적인 농촌여성의 문제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였듯이 그 문제 해결방안의 모색도 전체 농촌여성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는 앞으로 진주시 농촌여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접근 전략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표 15〉와 같다. 이 〈표 15〉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림 2〉을 통해 이해하였던 농촌여성의 부문별 접점에서 보여지는 문제와 요구를 기초로 한 것이다.

3. 농촌여성 복지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과제

진주지역 농촌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는 앞으로 농촌생활개선사업 내에 여성의 농업인으로서의 역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를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농촌여성의 실태와 지위 분석으로서 농촌여성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차이를 인식하여 사업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주시 농촌여성의 실태와 지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농촌여성의 농업생산 참여와 기여도에 대한 개략적 평가, 여성정책 및 농

<표 15> 영역별 농촌여성의 문제와 요구에 따른 접근 전략

영역	주요활동요소	추구목표	주요과제
시민+농업	경제활동 (직업인)	직업능력 개발 경제발전 기여	영농기술교육/정보화 교육 마케팅 및 경영교육 농외소득활동
농업+여성	여성문제 (특수여성)	복지 서비스 증진 지위 향상	여성, 노인복지/소외계층 생활보장 여성지위 인정/농정활동 참여
여성+시민	사회참여 (지역사회)	참여와 기회의 평등	문화교양강좌/역사의식(소속감) 조직/봉사활동 시민의식교육/시정활동 참여
시민+농업+여성	여성농업인	농촌사회 유지 농가경영체 지속 다원적 기능 실현	농촌사회 정착/안정적 농업기반 진주비전 21 실현

업정책 속에서 진주 농촌 여성정책의 필수 요소 추출 등과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 지원정책 평가가 필요하다. 여성 및 농촌을 위한 복지 지원정책의 현실 적합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농촌 여성업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현황 분석,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가능성 탐색 등이 필요하다.

셋째로 농촌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전략적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진주시에서는 농촌여성의 다양한 문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 지원하고 어떤 문제를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가와 같은 종합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여성 복지사업의 추진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농촌여성 관련 업무의 효과성과 목적성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추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진주시는 '논개'의 정신을 상징화하고 있듯이 조직활동이 활발하다면 여성조직을 활용하여 조직활동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한 여건 조성, 지도자 교육(능력 개발)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진주지역 내 여건과 농촌여성의 요구 반영이다. 진주시내 큰 규모의 공식적인 사회교육기관만도 9개가 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사회교육원,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시청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교육기관의 활성화는 국가차원에서도 국민의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강조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마을단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진주시에서도 올해 처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이 전체 농촌여성의 복지 증진이라는 종합적인 계획 위에서 위치지어져야 그 올바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진주시 농촌여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농촌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주체로서 농촌생활 개선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 구조의 변화와 경남 및 진주지역의 농업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농촌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의 특성을 연계하여 분석해 보았으며,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따른 문제들, 정책적으로 지원을 원하는 분야와 요구에 대한 검토, 농촌사회 복지 문제 속에서 여성의 문제 등을 추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진주시 자체의 독특한 농촌사회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경남에서 진주시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 진주시의 발전 방향과 비전 속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와 역할, 진주시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여성의 문제와 역할 등에 대한 연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진주시 농촌여성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안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고 그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진주시 농가인구 및 농촌여성 인구 구성비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으로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도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이다. 또한 영농유형이 전국적으로 논벼 중심에서 채소, 과수, 축산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경남과 진주지역은 채소농가의 수가 급증하고 있었고 특히 진주는 그 경향이 뚜렷하였고 농업의 여성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둘째로 농가인구의 감소 등으로 농업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의 농업참여도는 거의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또한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도 소득불안정에 대한 신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가족농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어 여성의 역할과 전문능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로 농촌여성의 농업참여가 늘어나면서 힘든 농사일로 인한 건강문제와 농가의 낮은 소득,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 및 문화환경, 자녀교육의 불리함 등으로 이농하려는 농가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을 농촌에 정착시키고 농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 중심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복지 증진,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농촌사회 개발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할 의사를 가진 농가도 10% 내외여서 앞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핵심 인력으로 육성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일반적으로 농촌여성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서 의사결정 참여 등 지위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은 소유권도 분배해줄 것, 신용을 높여줄 것, 지역사회 단체나 남성 위주의 농업관련 단체 등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로 지금 농촌은 과거와는 달리 환경보전, 전통문화 유지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가진 삶의 터전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농업은 21세기 기적의 생명공학산업의 무한한 소재를 품고 있는 소재산업으로서 재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데에는 여성이라는 핵심주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주시를 생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발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농촌 여성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농촌이 오히려 환경보전의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섯째로 농촌지역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 따라서 직업교육이나 부업교육은 물론 취미·교양 강좌 등에 대한 열의 또한 높다. 진주시 내에서만도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사회교육기관이 9개가 있다. 기관별로 어떻게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점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로 진주시는 농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농산물의 주 품목이 채소나 과수라는 점에

서 이 역시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다. 더욱이 이제는 생산만이 아니라 선별, 포장, 유통 과정의 품질관리 등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고 사이버 시대에 맞게 전자매체를 활용한 정보관리와 고객관리, 농업경영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농촌여성은 그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교육을 농촌여성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로 농촌여성의 문제는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업부문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 농업진흥정책 속에는 반드시 여성에 대한 복지 및 지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주시 농촌여성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책에도 적극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여성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 농업의 문제, 지역사회 시민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형상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쉽지 않다. 또한 진주지역 내 농촌여성의 문제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진주시 농촌여성의 발전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유관기관이나 단체, 부서별 연계망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사업의 추진 성과를 훨씬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누가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생활개선사업이 그동안 농촌여성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농촌여성의 문제는 복합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부서간 협력체계를 운영할 능력을 함께 부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실태 조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 진주시의 변화 전망과 21세기 비전에 대한 연계성 분석을 통해 진주시 농촌여성의 발전 방안과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자체 지역내에서만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의 교류, 타 지역의 전문가 초빙 또는 위촉, 중앙 단위의 관계자나 전문가 참여 촉진 등과 같은 방법들이 보완된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전체 산업구조로 보면 농업이, 지역 배분으로 보면 농촌이, 대상별로 보면 농촌여성이 매우 적은 부분으로 그늘져가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 때 과감하게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접근해간다면 미래의 새로운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력과 실천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진주시 농촌여성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VII. 참고 문헌

1. 강원도, 1999, 강원도 여성농민의 현실과 지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2. 경북여성농민회연합, 2000, 경상북도 여성농민 기초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
3.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1997, 경북여성의 현황 : 인구 및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4. 김경미 외, 1999, 여성농업인의 지식·정보 현황과 금후방향, 한국농업정보과학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자료집 pp. 21-36.
5. 김경미(농생연 a), 1997,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특성 및 생활만족수준 분석, 농촌생활원구소 시험연구보고서.
6. 농림부 a, 1999,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일경제사업연구원, 정책용역연구과제보고서.
7. 농림부, 1990, 농업총조사(전국편, 경상남도

- 편).
8. 농림부, 1995, 농업총조사(전국편, 경상남도 편).
 9. 농림부, 1999,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10. 농림부, 2001, 2000농업총조사 잠정결과.
 11. 농촌생활연구소, 1999,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방안 심포지엄 결과 보고서.
 12. 농촌진흥청, 1997, 농촌여성의 역할수행 및 지위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13. 안옥선(농생연 d), 1999, 농부중 실태에 관한 연구, 농촌생활연구소, 시험연구보고서.
 14. 여성부, 2001,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2000년도 사업실적 및 2001년도 시행계획.
 15. 조홍식 외(농림부 b), 2001, 용역연구과제 :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6. 진주시청(가정복지과), 2001, 주요업무보고 : 2001 실적 및 2002 계획.
 17. 진주시청, 2001, 농산물 수출정보, <http://210.104.76.129/jinju/chinju/수출정보/2001사업별추진시책.htm>
 18. 진주시청, 2001, 제 42회 : 2000 진주통계연보.
 19. 진주시청, 2001, 진주21비전, <http://www.c-hinju.kyongnam.kr/chinju/21cvision>.
 20. 진주시청, 2001, 진주시 공고 제2001-58호 :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21. 충청북도, 1999, 농촌여성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2. 통계청 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23. 통계청, 2000 인구이동통계연보. (2002. 4월 23일 접수, 심사 후 수정 보완)